

최 부총리, 유로클리어(Euroclear) 최고경영자(CEO) 피터 스네이어스 화상면담

- 부총리, 비과세 가이드라인 등 국채투자 제도개선 설명 및 유로클리어의 지지·역할 당부
- 유로클리어, 韓 제도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4월 FTSE 최종점검에 대해 긍정적 전망

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.27일(목) 유로클리어(Euroclear) 최고경영자인 피터 스네이어스(Peter Sneyers)와 화상면담하여, 금년 11월 한국의 차질없는 세계국채지수(WGBI) 실제 편입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. 특히, 한국 편입 준비에 대한 FTSE*의 WGBI 편입 최종점검(4.8일)을 앞두고 그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제도개선에 대한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반응·평가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.

* FTSE Russell은 글로벌 금융정보 및 주가채권지수(WGBI, Russell 2000 등) 제공 회사

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가 지난해 10월 WGBI 편입 결정 이후 금융·외환·세제 전 분야*에 걸쳐 국채 투자 관련 제도를 과감하고, 빠르게 개선해 왔음을 강조하였다. 특히, 해외투자자들을 위해 국채 비과세 신청시 제출서류와 절차를 전면 간소화** 했음을 언급하면서, 우리 정부가 금일 배포한 상세 비과세 가이드라인(국·영문)을 활용해 해외투자자들이 글로벌 주요 시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.

* 비과세 절차 간소화, 통합매매체계 전환, 글로벌 판매모델 도입 등

** (기존) 비과세 신청서, 거주자증명서, 거래·보유내역서를 제출

(개선) 국채통합계좌 이용시 성명, 주소, 국적, 식별번호 등 기본 정보만 제출하면 (기타 추가 서류 제출 폐지)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절차 대폭 간소화

※ 「적격외국금융회사등(QFI)의 승인대상 범위 및 운영 안내」 (별첨)

또한, 최 부총리는 유로클리어와의 협업을 계기로 짧은 시간 내에 한국의 전반적인 국채 투자 인프라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스네이어스 대표에게 사의를 표했다. 최 부총리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새롭게 개선된 한국의 제도개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속히 국채 투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유로클리어 스네이어스 대표는 국제투자 기준에 맞춰 빠르게 채권투자 제도를 개선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매우 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내달 초 FTSE의 WGBI 편입 최종 점검결과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망하였다. 또한, 스네이어스 대표는 글로벌 투자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실제 한국 국채 투자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였다.

정부는 11월 한국의 WGBI 실제 편입 전까지 글로벌 투자자들과 긴밀히 소통하여, 제도개선 사항을 점진·보완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글로벌 수준의 투자환경 조성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.

<기획재정부>	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	책임자	과 장 황희정 (044-215-4750)
		담당자	사무관 박세웅 (loneilia@korea.kr) 사무관 안건희 (gunny14@korea.kr)
	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	책임자	과 장 김희재 (044-215-4710)
		담당자	사무관 하다애 (daae0517@korea.kr)
	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	책임자	과 장 김영현 (044-215-4650)
		담당자	사무관 위우주 (ujuwi0510@korea.kr)
<국세청>	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 전애진 (044-204-2801)
		담당자	사무관 박진우 (jwpark0207@korea.kr)
<예탁결제원>	글로벌금융부	책임자	부 장 박중훈 (051-519-1815)
		담당자	팀 장 최극진 (kjchoi@ksd.or.kr)



참 고

「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대상 범위 및 운영 안내」 주요내용

* 원문 링크 : <https://www.ksd.or.kr/ko/about-ksd/ksd-news/notice/36976>

◇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비거주자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외 서류제출 모두 폐지(2.28일 시행령, 3.21일 시행규칙 개정)

□ [절차 간소화] 적격외국금융회사(QFI)* 경유시 절차 완화

*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: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으로,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의 이자·양도소득 비과세 관련 업무 수행

○ (QFI 경유) 최종투자자(하위펀드)별 비과세신청서 제출 면제

- 중간수탁기관(글로벌 은행, 자산운용사)은 투자자의 최소한 정보*를 QFI에 전달하는 것 외 서류 보관·제출·확인 등 모든 의무 폐지

* 투자자별 명칭, 주소, 거주지, 식별번호(LEI 외 법인등록번호 등 활용 가능)

- QFI는 중간수탁기관에서 받은 정보를 보관·비치해야 하며, 사후 국세청 요청시 제출 의무

○ (QFI 미경유) 비과세신청서 제출 절차* 유지, 단 서류 간소화

* 비거주자(외국인투자자)는 비과세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인 국내 금융기관에게 제출하고 국내 금융기관은 비거주자별 신청서를 국세청에 제출

□ [기타 모든 서류 폐지] ①거주자증명서, ②거래·보유 내역서 폐지

① (기존) 등기부등본, 법인명 확인가능한 정부 발급 서류 등 필요
→ (개선) 거주지 법인 등록번호 등만 추가 증빙서류 없이 기입

② (기존) 거주성 확인과 무관한 매매·보유·이자 지급 내역 보고
→ (개선) 매매·보유·이자 지급 내역 제출 의무 전면 폐지

비과세 신청 절차·의무 비교

구분	의무	과거	금번 개선	주요 선진국
QFI (유로클리어, 클리어스트림)	비과세 신청서 수납	○	X	X
	투자자 거주성 확인	○	X	X
중간수탁기관 (글로벌 수탁은행, 자산운용사 등)	비과세 신청서 수납	○	X (QFI에 최소한 정보만 전달)	X
	서류 보관·비치	○	X	X
최종투자자 (하위펀드)	비과세 신청서 제출	QFI 또는 중간 수탁기관에 제출	X (QFI에 최소한 정보만 제출)	X
	서류 보관·비치	X	X	X